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안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41호

서기 2001년 10월 31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안팎 둘 아니게 조복받아야 고통없어

세상사가 모두 인과법인지요

문 저는 모든 현상을 연기에 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자입니다. 즉 행동이나 생각이나 현상적으로나 현재 제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앞서 있었던 인과의 결과가 현재를 이루고, 현재의 상태가 미래를 결정하면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연기(緣起)라고 이해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물질적인 현상은 이렇게 해서 대략 이해가 되지만 정신적인 현상은 이해가 되지 않기에 문의 드립니다. 모든 현상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간다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나 의지도 모두 어떤 인의 상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답 그냥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알게 모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굶어 죽는다 잘 먹고 산다 이런 걸 떠나서 지구를 집으로 삼아 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웬만치 남독하고 이해했다고 하기 이전에 진짜로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고 형성시켰다는 걸 아신다면 어떤 것도 부림이요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당당하니까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것만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 하는 양 갈래 길을 다 자기 한 손에 쥐어야 만이 그게 부처님 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같고 우연히 사는 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잠시 전에 누구한테 말을 잘못했다면 지금 그 잘못이 나한테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침착하게 한 생각을 해서 말을 잘 하고 생각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한 그 결과가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이기에 팔자나 운명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입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뜬 하늘, 뜬 포기도 다 실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팔자나 운명이나 하는 것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살아가면서 생각을 잘 못하고, 행동을 잘 못하고,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간적인 계산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귀도 열고 있죠? 발 움직여봐요? 냄새 잘 맡죠? 다 이렇게 물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가는 대로 앞뒤를 다 보고 행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그대로 연기법이며 그대로 공법이며 그대로 세상 법입니다.

환생 있다면 제사 왜 지내는지

문 우리 인간은 죽으면 과거 생과 현생에서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서 해탈을 하든 육도 윤회를 받든지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지 수년 혹은 수십 년 되면 각기 업에 따라 이미 천상이나 인간 혹은 짐승으로 환생하여 태어나 있거나 또 다시 환생하기도 했을 것이고 아귀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혼백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특히 음식물을 차려 대접을 융숭히 하려하는 것은 조상

님들을 숭모한다는 뜻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고 49일이 지난 후의 일들을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어야 하는지요?

답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그 원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심어서 먹어도 씨앗이 남듯이 그 에너지는 꼭 남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 그 에너지는 에너지 주장자로 화합니다. 에너지 주장자로 화하기 때문에, 예전에 임제스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네 주장자가 있다면, 마음공부를 해서 주장자로 화했다면 내 주장자도 너에게 줄 것이므로 네 주장자가 화하지도 않았다면 내 주장자를 너한테 줄 게 아니라 네 주장자를 뺏아줄 것이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아주 죽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없어지는 거지 그 원소 자체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 자체는 끝없이 가는 것이고 나의 영혼 자체가 일을 저지르면 모든 게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오기 때문에 업이 있다, 업력이 있다, 유전성이 있다, 영계성이 있다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영계성을 제거하려면 그 자리에 맡기고 관(觀)하시라는 겁니다. 진실로 한번 관찰 때마다 하나 하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업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거죠.

우리들 몸통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 공생(共生)입니다. 세포 하나의 생명도 모두 살아 있는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하고 가지 어떻게 따로따로 하고 갑니까. 근데 같이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병이 생기면 찔박질이 나서 살이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고 또 에너지가 막혀서 백혈이 되고 그냥 온통 병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유전성이 없어지질 않아서 그렇기 되는 거고 영계성이 나오고 그냥 요만한 거 하나가 지고도 크게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깐 우리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 생각의 공덕을 그냥 몽땅 쌓아 놓으면 자식들한테까지도 미치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부모가 그렇게 먹을 쌓아 놓은 것이 자식들에게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게 자식에게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그 자식 대에서 끊어지느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소는 항상 남아 있는 겁니다. 은하계의 별성이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소는 남고 껍데기만 떨어지면 그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게 가루가 돼서 없어지죠. 그러나 그 원소는 남으니깐 다시 옷을 입고 나오는 거나 같습니다. 은하계에도 별왕이 있듯이, 별왕이 있어서 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원소가 있기 때문에 옷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신 부모라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연에 따라서 어떠한 나쁜 인연이 있다면 나쁜 인연으로 인해서 같이 한 식구가 됩니다. 나쁜 인연으로 식구가 됐으면 서로 고통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고통을 주고 싸우고 미워하고 문제가 생기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벌여놓고 이렇게 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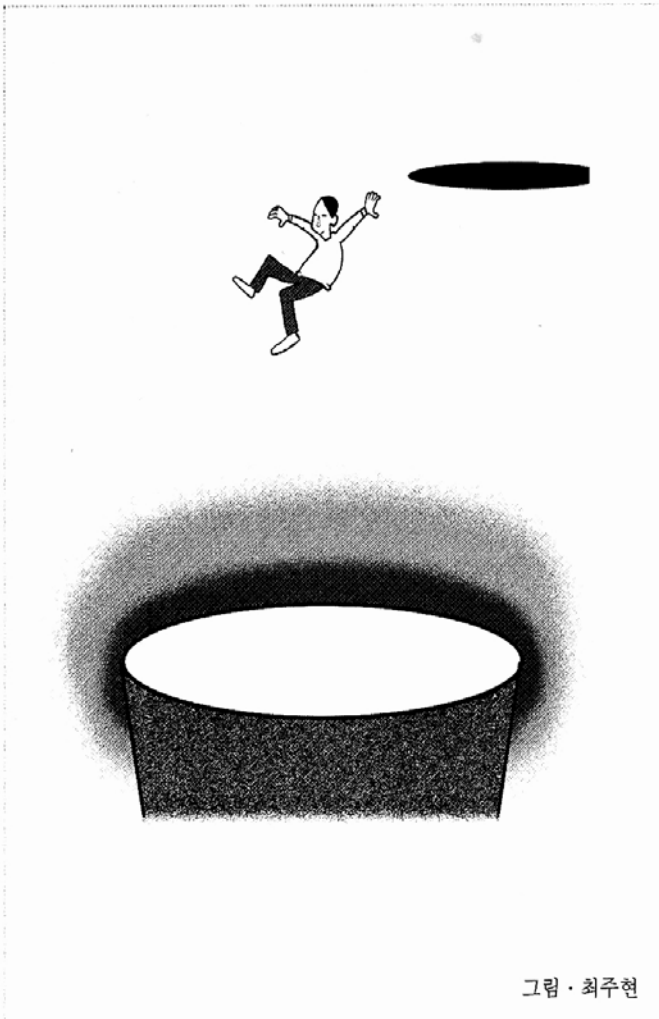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北에 살아 계셔도 제사 지내 드리세요”

끓는 운명탕 아니라 함부로 산 결과

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날 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깐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편하게, 자손들도 좀 착하게 하려면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해 나가신다면 자손들도 보이지 않게 그 뜻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마음과 아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일은 같이 않지만 생각하는 자체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지혜롭게, 남을 해치지 않고도 이익 되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해를 안 보면서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이복에서 돌아가셨는지 영 모르는데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살았으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드리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배가 고프게 사시더라도 배가 부르게 사실 거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자식의 그 정성으로 부모가 배고프지 않게 사시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제사를 지내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일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불이 나서 다 죽을 상황인데 다 살았습니까. 왜 살게 되었느냐 하면, 예전엔 먹을 게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물을 뜯어서 보리쌀을 뺏아서 떡을 해서, 집안에 조상들이 많이 죽었지만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먼저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불이 났는데 자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저 그릇 같은 것만 타고 다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고 동네에서는 전부 나물이라도 캐서 하다 못해 없으면 죽이라도 씹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됩니다. 그저 요만한 정성을 들이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요만한 생각을 해서 자식들한테 생각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아이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내가 저 쪽의 주인공에 가서 그저 환히 밝게 해 달라고,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관을 한다면 자식들한테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들 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을 정성껏 모시면 결국은 그 자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사 때마다 음식을 진수 성찬으로 차려놓고 지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못났든 잘났든 또 궁하면 부자들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참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믿어야지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조상님도 그렇고 나라까지도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심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문 스님의 법문을 듣다보면 무심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끔 듣게 됩니다. 머리로 보는 그 뜻을 알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질문을 드립니다. 무심의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무심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들로 보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서 한 군데 놓는 것이 무심의 도리입니다. 나를 깨우쳐 가지고도 돌아 안 돌아 모르면 자꾸 자꾸 미(迷)해지고 또 나를 깨우치고 나서도 정성을 다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다시 놓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무심의 도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꾸 놓아 하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는 걸 세우지 않고 만들 만생과 더불어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내 아플 아닌 게 없고, 나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살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진짜로 하고 실천하는데 요건이 있는 겁니다.

자나깨나 노심초사 게으름 피우지 않고 길을 걸으나 번소열 가나 나오나 들어가나 떠난 생각이 하나도 없이 항상 들이고 내는 그 생각만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는 한 사람에게도 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가지 꿈 꾸었는데...

문 제가 얼마 전에 설악산에 있는 절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조그마한 시루에다 떡을 찌 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듣고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작은 그릇에 맑은 물을 부어서 고기를 한 마리 띄워서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요. 또 조금 있으면 새까만 접전 두 개를 주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제 성불을 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꿈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 주시옵소서.

답 한 시루의 떡은 우주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돌 아리게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고기 한 마리가 물에 담겼다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물에 고기 한 마리 담긴 것과 같습니다. 흘러 도는 물에 고기 한 마리! 그 한 마리는 한 마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들고 있다는 표현이죠. 돈은 지금 찰나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들고 도는 걸 말하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 한 사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있죠. 우리 인간들이 찰나찰나 고정되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지 않고 맥박 뛰듯 돌아가죠? 시공이 없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선을 수행하고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돌아갈 땐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옹도대로 놔둬야 합니다.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닙니다. 생시도 꿈이고 꿈도 생시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되게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이지 꼭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에 착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공부하는 과정을 표현해서 여러분한테 꿈으로 보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도리를 공부하는 중에 깨우침을 주기 위한 과정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스스로가 모르니까 환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상이 나타나거든, ‘아! 나를 깨닫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 하느라 하고 이런 꿈을 꾸는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의에서 구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뭐가 보인다고, 잘 보는 사람이 “당신 한 달 후에 뭐가 생길 거야. 병고 생길 거야. 잘 될 거야” 한다 해도 그런 것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거기다가 놔둬둬. 좋아하지도 말고, 안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안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먹기 달린 거지. 상대방이 안좋다고 해서 안좋은 게 아니고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꿈에 그렇게 보았다, 또 꿈을 나쁘게 꾸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땅에 가다 엎어졌으면 그 땅을 짓고 일어나야겠지. 그와 같이 안좋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소견일 뿐입니다. 안좋다고 생각 마세요. 그리고 그것도 ‘아! 안좋다고 생각이 들면 언짢은 것을 좋게 할 수도 있는 건 주인공밖에 없지.’ 하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것도 놓는 겁니다.

이게 가깝고도 멀고, 멀고도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처를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꼬달리지도 말고 ‘나는 부처가 안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증생이다 부처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말고 원하지도 마세요. 그래야 만이 부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정말 되신다면 한 발 내려놓고 보살행을 하면서 천백 억 화신으로서 보살행을 한다 이 소립니다.

잔인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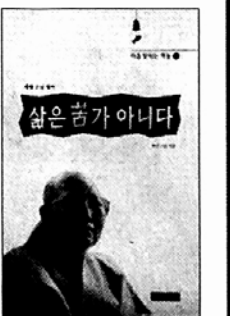
문 참선을 하다 보니까 아주 거칠고 잔인한 생각 또는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잘

20면으로 계속

가빠른 언동을 닦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역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